

김병준(전 청와대 정책실장) 1차 / 13차 구술

1. 구술자: 김병준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박성수 /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2월 17일 / 7월 23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공공경영연구원
6. 구술분량: 04분 54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지역주의에 대한 정치인 노무현의 철학

면담자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¹⁾ 보시기에는 왜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천착을 하게 됐는지, 대통령님이 당시에.

구술자 : 모든 모순이 거기서부터 발생한다고 봤으니까. 우리 정치의 후진성, 이런 문제가 다 전부 지역주의로부터 출발한다고. 어떤 것을 세워도, 말하자면 어떤 인물을 내세우고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그것이 지역주의 속에 다 덮여버리는 이런 구조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는) 정치 발전이 될 수 없고. 결국은 모든 것이 정치가 문제라고 봤고. 근데 그 정치 문제 속에는 지역주의가 있고. 그래서 그 근본을 깨야지 만이 정치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가 다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봤는데 그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만병의 근원이야.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 실제 또 그랬고. 그러니까 그것을 깰려고 노력했는데, 깨질 수 있다고 또 믿었어. 내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깨질 수가 (있다). 시민사회를 믿고, 이거는 깨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태클(tackle)을 하고 했는 거지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그래도 함 때려 보는 거다’ 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중에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깨질 수 있다, 라고 보는 생각은 한 거야.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참 경이로와요.

내가 좀 학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²⁾ 우리 사회의 기본 모순을 지역구

1) 2000년 16대 총선 전후를 말함.

2) 이 부분부터 13차 구술 내용임.

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해결돼야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과 담론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국민들이 그 문제에 덩벼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주의라는 것이 들어서서 담론구조를 전부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역주의에 가려가지고 그 문제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주의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더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지역주의 타파를 가장 중요한 일(1)차적 목표로 잡으셨던 (것이죠).

근데 단순한 지역주의를 넘어서 그 뒤에는 뭔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계몽적 사상과 국민들이 좀 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더 접근해야 된다는 그 시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주의 자체, 지역주의 타파라는 게 노무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 그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몸으로 부딪혔는데. 사람들이 뭔가 하면 ‘저 양반은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왜 부산서 민주당 깃발 들고 김대중 깃발 들고 그러냐. 저건 뭐 택도 아닌 짓을 한다’ 라고 하는 데. 하나, 이런 거 같아요. 우리하고 좀 산법(算法)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엉뚱한 짓은 전혀 아니야, 본인 입장에서. 당신 입장에선 엉뚱한 짓은 절대로 아니야. 항상 어떤 시각을 가지는가 하면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참 정치인다운 생각인데, ‘뒤에 가만있어서 갖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려고 했으면 끊임없이 나와서 요구하고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해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무조건 뛰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산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굉장히 큰 생각을 가졌었어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 안했어요. 본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출마하는 거지 ‘나는 떨어져도 좋고’ 뭐 이런 거 하곤 달랐다 말이지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셨다 말이야. 그래서 더더욱 과감하게 그렇게 가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셨죠. 보기 드물지. 지금도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 구술자 주요이력

- 1954. 경북 고령 출생
- 1972.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 1976. 영남대학교 정치학 학사
- 1979.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치학 석사
- 1984. 미국 델라웨어대학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 1986. - 2004.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1995.01 - 2000.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 1995.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 1995.09 - 1998.08 미국 델라웨어대 도시행정대학원 외래연구교수
- 1996.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장
- 1998. 자치경영연구원 원장
- 1999.08 - 2002.04 자치경영연구원 이사장
- 1999.08 - 2000.07 일본 국제교류기금 펠로우(게이오대 교환교수)
- 2002.09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
- 2002.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
- 2003.04 - 2004.06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2004.06 - 2006.05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관급)
- 2006.07 - 2006.08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 2006.10 - 2008.0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2012년 현재)
- 2008.02 - 사단법인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2012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1993년 9월 문을 연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주최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자치경영연구원 원장과 이사장 등을 맡으며 활동을 함께했다. 2002년 대선 때 정책자문단을 이끌었다.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거쳐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김병준 교수는 내가 정치를 하는 동안 꾸준히 정책 자문을 해준 유일한 대학교수였다(130쪽)” 고 기록하고 있다.